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안톤 솔츠



나처럼 한국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자동차 생산국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이 여전히 모터스포츠와 거리를 두며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자동차 제조산업을 인정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갖게 된지는 이미 오래다.

스 기사들의 그 엄청난 운전솜씨를 보면 한국은 확실히 모터 스포츠에 충분한 재능이 있고,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실제로 카레이싱 선수 못지 않게 전문적인 운전 실력을 가진 택시기사들의 차를 타본 경험이 있다)

물론 한 스포츠의 인기를 올리고 싶다면

## 한국 모터스포츠의 도래

면 정체성이나 연대감이 느껴지는 팀이나 선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박테리가 없었다면 그렇게 갑자기 온 나라 전체가 골프에 열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큰 이벤트는 한국인의 '화이팅 정신'을 불러넣어 주는 힘이 있어 왔다.

나는 사실 한국팀이나 한국인 선수가 없지만 F1 국제자동차경주에 대한 관심과 사람이 불붙듯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열정을 모터스포츠에서는 그다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자동차 생산국들 중에서 한국이 어떻게 그리 빠르게 세계 정상에 올랐는지, 그리고 택시와 버

2010년에 있었던 1번째 경주를 떠올려 보면 그야말로 카오스였고, 심지어 2011년에 한국에서 F1경주가 계속될지 확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열광에 찾아오는 레이싱팀에게 나는 자신있게 "내년에 다시 봅시다!"라고 인사하고 다음해 경기가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슬슬 앞으로 다가올 F1경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고조되기를 희망한다. 어쩌면 대신이 지난 후에는 한국의 행정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이 같은 빅이벤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다시 깨달아 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는 매우 색시하게 디자인되고 퍼스트 클래스를 대변할만한 멋진 옵션과 좋은 엔진 또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스텝으로는 모터스포츠를 글로벌 마케팅 도구로서 꺼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요즘 들어 한국인들이 수입차 구입을 더욱 선호하는 지금의 트렌드를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훗날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의 자동차 박물관에 레이싱 트로피들과 함께 세계 경주에서 우승한 레이서들의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들을 소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유산을 만들어 가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모터 스포츠 역사에도 손거짓 선생과 같은 영웅이 필요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현대 i20 랠리카나 현대 자동차의 슈퍼 GT 레이싱 대회 참여는 새로운 도약이다. 만약 한국의 자동차들이 모터스포츠의 강국들과 겨루는 자리를 못가면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모터스포츠를 받아들이고, 한국의 우수한 자동차 산업과 그에 대한 열정을 세계에 알리기에는 지금이 더 없이 좋은 때라고 본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 멋진 쇼를 볼 수 있길 바란다.

<코리아컨설트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혈관 막힌 유통구조 언제 수술할 건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배추·무 등 채소류 유통비가 무려 소매가의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는 생산자인 농민은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소매가 유통비 비중은 과일류 50.4%, 화훼류 56.3%, 식량작물류 26.7% 등 평균 41.8%로 조사됐다. 특히 채소류 유통비는 김장무 80%, 김장배추 77% 등 평균 69.6%에 달했다. 최근 포기당 3500원까지 오른 김장배추의 경우 농민 몫은 고작 800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가을배추의 경우 산지에서 3.3m(8~10포기)당 4000~6000원이었으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말당(3포기) 1850~3800원, 소매단계에서는 포기당 1132~1189원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이 '농민→산지유통인→도매시장 중·도매인→2차 도매인→소매점→소비자'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유통마진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유통비 41.8%를 단계별로 나눠 보면 출하단계 10%, 도매단계 8.6%, 소매단계 23.2%나 됐다.

허울 좋은 '유통 선진화'에 대형 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시장을 급속 잠식했을 뿐 소매단계 유통비는 6년 전인 2006년(23.2%)에 비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와 대기업은 유통업 대명화를 통해 유통비를 줄이겠다고 나섰으나 메아리가 불쾌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마진을 줄여 소비자에게 싼값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등 유통체계를 개선해 효율화 시켜야 한다. 펼칠 식처방이나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학교급식 담보로 하는 파업 절대 안된다

급식조리원 등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9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결행키로 해 교육 당국과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급식 차질로 인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등교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빵 등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할 형편이다.

이 같은 파업 결정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에 큰 차질과 혼란이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의 각급 학교에는 비정규직 조조원의 80%가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들이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점심·저녁 등 급식 중단이 불가피하다.

노무법상 합법적인 파업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데다 학교가 도시락 업체에 점심을 일괄 주문하거나 오전 수업만 하는 것이 노무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지만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갑작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은 물론이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으로선 도시락을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동안 경제적·업무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온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빵으로 때우면 국민적인 반발만 살 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이번 대선에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과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도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상생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딩다리딩딩 딩딩딩, 딩다리딩딩 딩딩딩’ 존 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제임스 본드 테마음악’. 필자가 아는 어떤 음악보다 중독성 강한 이 테마음악은 아버지의 영상과 겹친다.

필자가 007시리즈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 무등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에도 모든 007시리즈는 아버지와 함께였고, 이제는 필자의 아들과 함께 007시리즈를 관람하고 있다.

007시리즈는 1962년 ‘살인번호’를 시작으로, 6명의 제임스 본드가 등장했다. 역대 가장 색시한 본드였던 1대 손 코너리, 단 한편을 찍은 2대 조지 라랜비, 제임스 본드와 동일시되며 최고의 흥행과 인기를 누린 3대 로저 무어, 4대 티모시 달튼, 5대 피어스 브러스난, 역대 선배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6대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이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50년간 끊임없이 진화하며, 007시리즈의 대명사가 된 첩단과학 장비는

기술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역대 제임스 본드는 모두 나이가 들 어 화려한 액션을 소화할 수 없어 자리를 물러주어야 했다. 이와함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등장하고 5학년 때 광주 무등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에도 모든 007시리즈는 아버지와 함께였고, 이제는 필자의 아들과 함께 007시리즈를 관람하고 있다.

007시리즈는 1962년 ‘살인번호’를 시작으로, 6명의 제임스 본드가 등장했다. 역대 가장 색시한 본드였던 1대 손 코너리, 단 한편을 찍은 2대 조지 라랜비, 제임스 본드와 동일시되며 최고의 흥행과 인기를 누린 3대 로저 무어, 4대 티모시 달튼, 5대 피어스 브러스난, 역대 선배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6대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이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50년간 끊임없이 진화하며, 007시리즈의 대명사가 된 첩단과학 장비는

기술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역대 제임스 본드는 모두 나이가 들 어 화려한 액션을 소화할 수 없어 자리를 물러주어야 했다. 이와함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등장하고 5학년 때 광주 무등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에도 모든 007시리즈는 아버지와 함께였고, 이제는 필자의 아들과 함께 007시리즈를 관람하고 있다.

### 아버지와 007



5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로 인해 퇴물 취급을 받았던 제임스 본드는 ‘스카이 폴’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통해 퇴물이 아닌 배틀과는 다소 동떨어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6대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이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50년간 끊임없이 진화하며, 007시리즈의 대명사가 된 첩단과학 장비는

기술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역대 제임스 본드는 모두 나이가 들 어 화려한 액션을 소화할 수 없어 자리를 물러주어야 했다. 이와함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등장하고 5학년 때 광주 무등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에도 모든 007시리즈는 아버지와 함께였고, 이제는 필자의 아들과 함께 007시리즈를 관람하고 있다.

## 의료 칼럼



김재성

노인들은 척추질환에 특히 많이 노출돼 있다. 요즘 가을이 한창이라 북녘의 단풍이 남뻑까지 물들고 있다. 특히 가을 산행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노인들의 척추질환이다.

척추질환은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보다는 노년의 연령층에서 더 쉽게 발생하게 되는 데 특이한 주의가 많이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척추뼈의 변화로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골다공증의 기능감소와 뼈의 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뼈의 소실은 대개 30세 이후부터 시작해 일생동안 계속되며, 특히 여성에서는 폐경기 초기에 뼈 소실이 일어날 수 있

### 노인성 척추질환 조심할 때

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점차 심해지는데, 뼈의 소실은 주로 허리뼈처럼 체중의 부담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심해진다. 이런 척추 뼈에서의 골밀도의 감소는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척추변형이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추간관이나 관절 등의 퇴행성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 몸의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위치한 추간관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30세 이전에는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유연한 조직이 딱딱해 지게 되는 과정을 밟는다. 부드럽고 탄력성이 강했던 디스크가 결국 딱딱하게 굳은 조직으로 변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만성요통 및 척추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노인성 척추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고 흔하게 일어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불안정증에 의해 일어나는 ‘척추 전방전위증’, 척추변형에 의한 ‘척추 후만 변형증’, 척추뼈 사이 관절 이상에 의한 ‘척추후관절증후군’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다.

노인성 척추질환 중 노인 분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척추뼈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뼈를 구성하는 영양분인 칼슘과 비타민D, 마그네슘 등이 감소하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척추 뼈나 고관절, 손목 등에서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상 뼈에서는 골조직이 촘촘하게 있는 반면 골다공증이 있는 뼈에서는 뼈사이의 조직이 엉성해져서 강도가 약해져 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에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심해진다.

남성의 경우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므로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분들에게서 압박골절이 당연히 잘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골절이 발생하면 누웠다가 설 때나 앉았다가 설 때 등 자세를 바꿀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며, 등을 손으로 누르면 심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게 되면 결국은 등이 앞으로 굽는 노인성 후만증으로 진행을 하여 새우등모양이 되거나 꼬부랑 할머니처럼 척추가 변형되게 되기도 한다.

압박골절의 치료는 간단한 척추성형술로 하거나 압박이 더욱 중요하다. 척추 성형술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30분 이내의 간단한 시술이며 시술직후 통증이 감소하여 보행이 원활하게 되고 척추뼈의 높이를 유지 해줌으로써 등이 굽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예방에는 균형 있는 식사습관, 적당한 운동, 금연, 절주 등이 필요하며 칼슘이 많이 포함된 우유, 유제품이나 요구르트를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D의 공급을 원활히 해주면 도움이 된다.

<광주 우리들병원 원장>

## 기고



윤준하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최근 국정감사중 공기업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질의와 의견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도 우리 지역의 공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무엇인가? 부채란,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 즉 ‘빚’이다. 따라서 부채란 일반적 상식으로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기업에게 부채란 피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사업상 필요한 ‘재원조달’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커진 지금 자기 호주머니 돈 만으로는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해 가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빚 없이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기업은 극히 드물다. 금융기관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조달, 재무적 자원의 활용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 지방공기업 부채 들여다보면

그러한 자금이 바로 ‘부채’다. 따라서, 부채는 산업경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요소로 이해된다. 그럼 ‘부채비율이 높다’ 또는 ‘낮다’라고 말하는데 부채비율은 무엇인가?

기업의 결산자료 중 재무제표는 부채금액과 자기자본이 표시돼 있는데 다음의 계산식으로 표시된다. ‘부채금액/자기자본금액×100=부채비율’. 이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지고 부채비율이 낮으면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은 당연히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채가 많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차입기관에 매년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많고, 상환해야 할 원금의 부담이 커져 기업이 도산하거나 수익성이 낮아져서 기업의 운영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정한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표준비율은 없다. 다만 동종업계의 평균비율이나 당해 기업의 과거 추이에 대한 수치들을 비교해서 당해 기업의 부채로 인한 위험이 없는지 추정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약성부채란 무엇인가? 기업에 있어서 부채란 것이 필요하면서도 일반적

으로 경원시하는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약성부채 때문이다. 약성부채란 부채의 순환, 즉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투자하고 수익을 남겨 이자나 원금을 원만히 상환하는 순환 구조일 때, 이때의 부채는 건전성 부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투자한 사업이 부실화돼 이자 지급도 못하고 원금상환도 연체돼 기업 경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러한 부채를 약성부채라고 하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광주도시공사 부채는 2011년 말 기준 6780억원, 자기자본은 2730억원이다. 그래서 부채와 자기자본을 합한 총 자산액은 9500억원 수준이다. 이중 부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시적 지불시점 차이로 지급하지 못한 외상비용이나 직원들로부터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한 예수금과 납부예정인 제세공과 등 경상적비용으로 다음해에 지불해야 할 부채가 약 180억원이고, 서민들을 위한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관련 기금차입금이

나 받아 놓은 보증금 등 채무가 약 1600억원이다. 또한 토지를 분양하고 받아 놓은 선수 계약금도 부채로 보는데 약 1730억원 정도 된다. 이에 대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차입부채의 성격이 아니고 약성부채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서민임대아파트, 영락공원운영, 시설물관리, 쓰레기매립장운영 등 시민의 공공복지성격이 강한 분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채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 지역에는 다수의 공기업이 있다. 공기업들은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한편으로는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1번재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지방공기업들은 수익창출과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지속·발굴해 시행할 때 재무건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인회계사>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